

전일동향

전일대비 21.40원 상승한 1,452.70원에 마감

3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21.40원 상승한 1,452.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4.70원 상승한 1,446.00원에 개장했다. 트럼프 관세 부과 및 중국 덩시크 충격 등을 소화하며 상승 출발한 환율은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에 상승폭을 확대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1,450원대 초반을 횡보하며 1,452.7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1.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9.0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46.00	1456.40	1445.10	1452.70	1453.00
	엔화	927.94	944.91	926.36	936.75	-
	유로화	1489.61	1516.76	1486.36	1506.98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37	-5.14	-12.54	-28.26
	결제환율(수입)	-1	-4.14	-10.78	-24.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트럼프 관세 시행에...1,46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7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52.70) 대비 6.30원 상승한 1,457.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행에 따른 달러 강세와 리스크 오프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 1일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소식 보도 이후 유로,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는 급락했다. 위안화 역시 약세를 보였으며, 엔화는 우에다 총재의 비둘기적 발언에 약세 압력을 받았다. 달러 지수는 주요 통화 대비 상승폭을 확대하며 0.35% 상승한 108.37선에서 마감했다. 금일 환율은 주요 통화 약세에 동조하며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상국의 보복 관세 등 글로벌 무역갈등 격화 가능성에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며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외국인 대규모 매도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 상승 분위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 당국 미세조정 경계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57.25 ~ 1468.7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167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30원 ↑
	■ 美 다우지수 : 44544.66, -337.47p(-0.7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3.1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686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